

발명 365

중고차 결함 찾는 장치

중고차 매매시장에 가보면 새 차처럼 번쩍거리는 차들로 가득하여 어떤 차를 골라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. 특히 초보운전자나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결만 보고 차를 샀다가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.

그런데 사고가 났던 차인지 아닌지, 페인트 칠을 두 번 이상 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다.

미국 플로리다 주의 프로모터카 프로덕츠사의 존 판스타인이란 사업가가 발명가이고, '스포트 로트 오토바다 게이저'라는 발명품이 중고차의 결함을 찾는 장치이다. 이 장치는 강력 자석이 내장된 플라스틱 튜브와 숫자가 표시되는 계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렇게 자석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만든 것은 페인팅이 두텁거나, 눈가림으로 메운 곳은 자석과 차체 간의 끄는 힘이 약한 것을 토대로 그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.

